

중국 선봉문학의 대표작가 쑤통 방한

문학작품을 통한 한국과 중국의 교류 절실

글_이주연 기자 | 사진_박신우 기자



“문 학은 거대한 의미를 찾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고독함을 달래줄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고독할 수밖에 없고, 고독한 사람은 자신의 존재 이유와 고독의 근원을 책 속에서 찾습니다. 그러므로 문학 독자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과 고독, 문학은 영원한 순환관계이므로 나는 ‘문학이 죽어간다’는 말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처첩성군》《쌀》로 국내에서도 이름이 알려진 중국의 대표적 소설가 쑤통이 지난 6월 12일 내한했다. 그는 ‘문학이 죽어간다’는 말에 대해 “책이 있다면 독자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쑤통은 얼마 전 출간된 《나, 제왕의 생애》를 홍보하기 위해 출판사의 초청으로 한국을 찾았다. 그의 방문은 최근 국내에 잇따라 소개되고 있는 중국 소설들과 더불어 많은 주목을 끌었다.

위화, 거페이 등과 더불어 1980년대 중국 선봉문학의 대표적 작가로 불리는 쑤통은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 중 한 사람이다. 기존 문학 형식의 파괴와 대담함, 기발함 등으로 새로운 소설을 선보이던 그는 1990년대에 들어 내용과 서사를 중시하는 신역사주의 소설 《쌀》 《나, 제왕의 생애》 등을 발표하며 많은 독자들을 거느리게 된다.

이번에 출간된 《나, 제왕의 생애》는 ‘섬나라’라는 가상의 왕조를 배경으로 열네 살 어린 나이에 제왕이 되었다가 다시 광대가 되어 세상을 떠든 한 남자의 인생 역정을 그린 작품이다. 작가 개인적으로 가장 아끼는 작품이기도 하다.

“이토록 상상력 넘치는 작품을 다시 쓸 수 없을 것 같아서 이 작품에 가장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작품은 젊을 때나 쓸 수 있는 것이고(이 작품은 1992년 작이다) 나는 이제 늙어서 그렇게 자유롭게 상상력을 펼치기는 힘들 것 같아요.”(웃음)

그는 곧잘 등단 시기와 나이가 비슷한 위화와 비교되곤 하는데 “어느 작가의 팬이 더 많느냐”는 질문에는 “아내와 딸에게는 항상 내가 ‘최고의 작가’이고, 그걸로 족하다”고 받아넘겼다. 또한 그는 최근 중국의 소설이 국내에 활발하게 소개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문학작품을 통한 한국과 중국의 교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영화나 음악은 중국에 많이 들어오는데 이상하게도 한국의 문학작품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작품을 통한 적극적인 교류가 필요합니다. 나 또한 한국에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방한을 계기로 독자들에게 다가갈 예정이고, 한국의 작가들 또한 한국의 문학을 중국에 소개하는 데 적극성을 띠었으면 합니다.” ■